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4호 [루제 제25497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보도 200일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된 데 대하여

당의 전투적호소마다 천체 군대와 인민이 총결

기, 흥대신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전개하여온 200

일전투가 12월 15일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200일전투는 혁사적인 70일전투에서 이룩한

승리를 확대발전시켜 당 제7차대회 회정신을 보위하

고 뜻깊은 2016년을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내어

기 위한 전인민적인 현충공격전, 강행돌파전이었

으며 전제없는 자력자강의 창조대결, 만리마축도

창조대결이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세시한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용대한 강행을 실현해나가는 첫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어나선 우리 인민은 만년을 파악히 박

차며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밀려 전국적으로

200일전투목표를 및나개 넘쳐 행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역사에 뮤에 없는 큰불미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

지역 인민들을 위하여 나рав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풍동원, 풍진중하는 전대미문의 복구선

생을 치르고도 200일전투의 각 방면에서 밤대한

전투목표를 일당장 점령한 것은 주체조선의 강대성

과 국력의 무한한 종심을 시위하는 장쾌한 기적

작사였다.

200일전투의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운한걸음의 투정은 결코 정화로운 환경에서

순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살고 강대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적

대세력들의 학동은 국도에 탈하였으며 세상에

있던 차연의 대세양은 일증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증점되는 난관파사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

념과 의지를 시시각각 시험하고 제국주의 반동을

은 감히 공화국의 「위기설」을 떠들며 우리의 전진

이 좌절되기를 막았다.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

원들과 군사자를 향해 당 제7차대회정신과 정침으로

흔들며 무장시키는 사상에 충족으로 전개하

고 맞안아나가는 광적적인 전략전술로 200일전

투의 전 전선에서 만리마시대의 눈부신 혁명속도

를 창조하고자 향하였다.

당이 가버리는 길은 곧 파파이며 승리하는것을 실

체험으로 간직한 천만군민은 폐쇄는 실장을 당중앙

프랑에 이어놓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불꽃튀는 뼈

얼전을 벌리며 흥정의 200일전투기록장에 남았다

새 기준, 새 기록상장의 위훈을 아새기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배두의 글함없는 광적정신

과 자강재력일주의를 떠내 새기고 불사임령 편

천락자산들을 끌어들이고 단밀마적인 무보한 도발

을 거듭 강행하였지만 우리 인민의 전진을 좌절시

키지 못하였다으며 조국의 방선은 은성침벽이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책은 백전백승의 김일성-

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

전동력을 소유하기 위한 백두산과 열등을 세차게

일으켜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을 비롯한 모든 작

전공간에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

하게 끌어들여 박멸시키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밟아내자고 헌신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선하지니 본인 당과 혁명대로의 일상

단결과 혁적같이 다져진것은 200일전투에서 이

특진 가장 큰 승리이다.

영웅한 인민군장병들은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보검을 풀어놓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색길의

전통력을 풀어놓고 당에서 희진선, 철령방

에서 결사관철의 산 모범들을 창조하여 온 나라

에 당의 사상판철선, 당성핵용위선의 물길을 지펴

올리고 군민대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혁명적당군의

본분을 밟아내자고 헌신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리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리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리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이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이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이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이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이어 더쳐울며 200일전투를 벌이는 온 나라 인민

에게 캐디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 국가의 전

혁적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풍선히하였다.

우리 인민의 소중한 모든것을 친화하려는 적들의

온갖 위협과 압살정책이 풀용지하게 사수할 만단의 전투준비를 더욱

우리 완비하였다.

군사혁명정신을 세워화한 미더운 국방공업전

사들은 혁명보위도와의 최종방어선을 향한 두목발

시험과 우려의 최첨단전투무기개발의 승전포성을 향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 관철에 떨쳐나선 통약산비누 공장에서

사시절 수정처럼
맑은 물이 흘러 나오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불리워온 통약산기슭의 풍자수려한 명당자리에 새성이 부려워 할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가 솟아올랐다.

연간 전용면적이 1만 8 400여 평에 달하는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통약산비누 공장이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본보기, 표준, 세계적수준의 비단 풍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рав,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려 할 유하는 나라입니다.』

공사가 시작된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물비누생산기지가 일떠서고 자동화된 흐름선들을 따라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라고 하시며

가지 가지의 기능성물비누들과 질 좋은 세척제들이 위엄없이 생활되어나오는 자랑찬 이 현실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며 원신과 보고를 바쳐가고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명령 형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오랜 화장품생산사를 자랑하는 기업체들도 적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약산비누공장처럼 공기좋고 물맑은 수려한 평소에 전국적 규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비누생산기지를 일떠세운 나라는 우리 나라 밖에 없을것이다.

한방윤의 물에 온 우주가 비긴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띠임을 정히 말들이 이 땅우에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인민의 막판을 일마

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지가 담겨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2(2003)년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물비누를 받을 바쳐가고자서는 하시면서 한 두평을 만족하고자서는 물과 쓰기 좋은 물비누를 많이 생산할 데 하여 간곡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못 잊을 역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유헌을 미흡하게 이에 새겨두고자 그 광활을 위해 늘 마음씨오신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약산기지를 확장부지를 잡도록 하여 공장의 명칭도 통약산비누공장으로 명명해주시었다.

그 이후 물비료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물밀의 혁명사적이 드립 없는 의지였다.

백두령장의 숭고한 뜻을 발달하고 백두산혁명장군의 강력한 전설역량이 여기로 달려왔고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파학자, 연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지 신질세워인들의 원신과 보고가 시무하게 안드는 인민의 명신이다. 이민위천의 그 명현을 이 땅에 더욱 만발하게 물비누에서 활성화시키는 정을 담아 명명해 주신 통약산비누공장!

공장을 건설해도 가장 현대적인 수준에서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의 세척과 요구에 맞는 흙을 만드는데 주신 통약산비누공장!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물비누공장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표시를 되뇌이시며 이 공장을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며 우리 당시 당시에 당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결심이고

백두령장의 숭고한 뜻을 발달하고 백두산혁명장군의 강력한 전설역량이 여기로 달려왔고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파학자, 연구

화살표따라 여기 통약산지구에서 어떤 인민사랑의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처 다 봤다.

지난 6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건설현장을 찾으시어 공장의 설계를 비준하여 내려보낸지 몇 달 안되는

통약산비누공장!

공장을 건설해도 가장 현대적인 세척제으로 물비누를 하고자서는 물비누를 만드는데 주신 통약산비누공장!

이날 우리 원수님께서는 물비누공장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표시를 되뇌이시며 이 공장을 우리 인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장이며 우리 당시 당시에 당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결심이고

백두령장의 숭고한 뜻을 발달하고 백두산혁명장군의 강력한 전설역량이 여기로 달려왔고 해당

났다.

지난 10월말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활하게 미소를 짓으시며 건설장을 돌아보면 날이 어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이 됐다.

우리가

현대화,

CNC화를

풀려히 실현함으로써 인민

들의 호평을 받은 인기상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하여야 합니다.

통약산의 풍자와 어울리

게 확실하게 멀리 선 멍청이

공장!

인간으로 훌륭하게 없는 현

대회원 공장!

일터의 자랑은 비단 여기에

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로 힘들게

인민들의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던

이드는

생산의 전성에

대한

분석과

제작

을

제작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5돐 재일조선인중앙추모대회 도꾜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5돐 재일조선인중앙추모대회가 17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 시며 민족의 영광인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추모대 회장장면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 앞에는 만고절세의 애국자, 주체의 선군대양을 품없이 따로 떠 흥모하는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이 어린 꽃바구니들이 놓여 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존엄높은 해양민족의 조종의 산이며 혁명의 성산인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참으로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위대한 장군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의 본래에 지어 천재적인

행복, 양적 찬사를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충현과 재일동

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첫

기간 반세기의 기치를 높이 드시어

사회주의 유흥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경지로 걸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

붙어있었다.

히틀러와 김정일대원수님은 함께 경계되었던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충현도업적業을 경례히 옹호하고

수하고 길이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 서한을 높이

발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경성

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

붙어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 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

었다.

히종만의 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충현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너무도 감자기, 너무도 애서하게, 너무도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시어 비애에 가슴을 치면서 품목한 력사의 그 날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훑혔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인류의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환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속상한 마음으로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현재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디합없는 정보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충현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삼가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의 본래에 지어 천재적인 행복, 양적 찬사를 담아 무미의 탐탁,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애의 뜨거운 정으로 전당과 전군, 전민을 전부에 헌신해온 특기로 사변을 같이 소리쳤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투쟁의 첫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신행성을 지니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계승되는 시대, 주체혁명의 새세대를 열지 신 위대한 정치기의 한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신행성을 지니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계승되는 시대, 주체혁명의 새세대를 열지 신 위대한 정치기의 한생이었다.

사상과 본래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및내 이시고 수령님의 충현증시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해온으로써 조국과 주체적인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놓여세우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낮파파, 삼복칠파, 업동식환을 모드시는 초강도

강행군으로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을 쉼없이 찾으시고 새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 올리시었으며 사회주의경제강국, 불명강국건설의 실계도를 평치시고 조국번영의 만년초석을 닦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인류의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환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속상한 마음으로 충현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충현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의 유훈관찰에 흥을 풀어놓았다고 말하였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에서

성장한 충현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주 주체위업의 최후승리에 향해 나가는 조국과 함께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영명하신 수령으로 충현일군들과 제일

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고신다.

그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타월한 령도가 있어 충현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의 유훈관찰에 흥을 풀어놓았다고 말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혁명생애는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인류의 자주화

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환생이었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를 펼친다.

정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적대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등이

위는 위대한 장군님들의 품목으로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